



통권 47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5. 9. 8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
이른바 8·15 대사면으로 풀려난 세계 최장기 복역 양심수들(대전교도소)
그러나 양심수 석방은 전체 465명 중 5%인 25명에 그쳤고, 오히려 5, 6공 범죄자
들에 면죄부를 주어 대사면의 뜻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왼쪽부터 안학섭, 김선명, 한장호 선생님.



범죄자를 감옥으로 양심수를 가족품으로

- 8·15 대사면의 기만성을 규탄한다

사상최대라고 미리 소문내 놓았던 '8.15 광복 50돌 대사면'은 언론들이 다투어 취급했듯이 5,6공 권력형 범죄자들에게 '형 선고 실효' 또는 '특별복권'을 시켜주기 위한 '대사면'으로 끝났다. 그리하여 그 엄청난 범죄의 사법처리 잉크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대화합이란 이름으로 그들과 손을 잡는 과거청산을 함으로써 이른바 문민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또한번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

적어도 조국해방 50돌을 맞는 대화합의 사면이었다면 해방과 함께 짊어져야 했던 분단 50년의 아픈 질곡에서 벗어나 통일시대를 여는 민족사적 뜻을 지녔어야 했다. 그것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가 함께 손을 잡고 일제에 맞섰던 빛나는 민족해방투쟁사가 이념적 편견을 넘어 최근 새롭게 조명되고 높이 평가되고 있듯이 해방. 분단대치과정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치적 의견차로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겨레의 이름으로 그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민족대화합의 정신이 있었어야 함을 말하며 군사정권 30년의 엄혹한 시대를 살면서 이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애쓰다 고난당했던 사람들, 사회정의 실천과, 생존권 현장에서 억압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족쇄와 오명을 풀어주어야 함을 말한다.

물론 '큰 범죄가 아닌 전과자'들에게 지난 허물을 벗겨주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돌아보게 하는데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비리(정경유착, 뇌물수수)는 권력과 돈을 배경으로 국민 절대다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며 그 더러운 기득권을 영구독점하려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들은 나라의 기강을 뿌리채 흔들었고 민족정기를 짓밟으며 사회정의를 외면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오류와 실책을 했거나, 배고파 담을 넘었고 차량홍수속에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 바로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그 병리현상으로 나타난 범위반자들과는 그 바탕에서부터 다르다.

8.15 사면조치는 이렇게 대사면의 본래의 뜻에도 어긋나고 원칙이나 기준도 모호하며 형평을 잃은 채 국민이 부여한 대사면권을 훼손시키고 남용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모두 풀려났어야 할 양심수는 전체 465명 중 겨우 5%인 25명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광복 50돌을 강조하였기에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컸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편견에서가 아니었다.

한 언론이 발표한 8.15 사면조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 수서비리, 울곡비리, 대기업 총수들과 일부 정치인 등 뇌물수수 관련자들의 사면



조처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평균 38.5%였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60%였다. 다른 한편, 비전향장기수 등 공안관계 석방조처에서는 79.9%가 바람직하고 20.1%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80%의 국민이 비전향장기수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어야 한데 뜻을 같이 했다.

양심수 석방에서 먼저 손꼽을 대상은 장기복역수들이다. 그리고 이분들 석방에서 꼭 잡고 갈 문제는 가장 오래 갇힌 구체적 개인들 문제가 아니라 냉전논리, 이념적 대결의식, 사상, 양심의 통제에 바탕하여 영구히 무기수로 가둬두고 있는 반인륜적(반생명)이며 반민족적(반통일), 그리고 반인권적인 장기수 일반의 문제이다. 45년, 43년, 39년째 갇혔던 세분이 풀려났지만 아직도 27년 이상 복역자가 23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우용각(38년), 윤용기(37년) 노인들은 지금도 세계 최장기수로 남아있으며 34년 복역자만도 6명이나 된다.

이분들은 평균 나이가 66세이고 윤수갑(73세), 김인수(73세), 홍경선(71세), 윤용기(71세), 이성우(71세), 김병주(71세)씨는 모두 70이 넘은 노약자들이다. 분단의 가장 아픈 멍에를 짊어지고 수십년 독방에서 세상과 등진 채 늙고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이 39년을 살지 않아 풀려나지 않았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양심이 설자리는 과연 어디란 말인가!

우리는 또한 양심수 석방의 형평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만기 20일 앞두고 풀려난 전대협 의장 김종식씨를 비롯하여 이번에 석방자 대부분 학생들은 1-4개월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같은 전대협 의장 송갑석씨(만기 2개월을 남겨놓음) 등 많은 양심수가 90%이상을 복역하고도 풀려나지 못했다. 서경원의원 방북사건, 황석영 범민련 사건, 노동시인 박영희 씨 등 방북 관련자들도 문익환 목사님과 임수경 대표처럼 마땅히 진작 나왔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엔에서 자의적 구금으로 결정된바 있고, 해외유학생 분단조국을 안타까와 했던 김성만씨 등 구미유학생사건 관련자가 사면에서 빠진것과, 사노맹 사건,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같은 조직사건과 합법적 노조활동을 했던 노동자들이 제외된 일도 사면정신에 어긋나고 있다. 장민성(노동해방문학실), 윤정환(민애전), 최진섭(민애전)씨는 형기의 92%, 97%를 복역했으며 정무성(동양알미늄 노조위원장), 서선원(전기협 의장), 김연환(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씨들도 96%형기를 살았다. 그리고 장기복역수의 박동운, 이상철, 정영씨를 비롯하여 김삼석 씨 등 최근에 구속된 조작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제외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돌아오는 9월 정기국회동의를 얻어 이루어질 일반사면에서는 이번 8.15 사면조처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민가협 공동의장 박용길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는 선별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또한 쫓기는 양심들의 수배해제와 풀려난 양심수들의 사면, 복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아드님 사진을 들고 양심수 전원 석방의 다짐을 하시는 모습

어머님의 눈물은 언제까지!

영장없이 불잡혀

1990년 11월 8일.
유달리 겨울이 빨리 찾아왔던 때였다. 급하게 잡힌 노동문화 토론회 일정에 맞춰서 나는 그날 오전에 장민성 선배와 함께 토론회 준비를 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노동환경,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에 벅찬 임금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이 나라의 노동자들을 소설과 시에 담은 작품들을 우리는 함께 읽었다. 그리고 나서 그 작품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하고, 토론회에서 이야기할 바를 간략하게 요점을 정리하여 토론에 참석하였다.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에서 있었던 이 토론회의 본 이름은 <전태일 열사 20주기 기념 노동문화 심포지움>이었다. 행사는 대성황리에 마쳤다. 연세대학교 앞 굴다리를 지나 신촌시장 건너편에 있는 어느 한식집에서 유쾌히 뒷풀이를 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식집 앞에 신원을 알 수 없는 20여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줄 늘어서서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장선배와 나는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아무런 영장제시도 없고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으며 달겨드는 그들 앞에 우리는 질질 끌려가 강제로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질 수 밖에 없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회상조차 힘들다.

장선배와 나는 22일 동안 남산에 있는 안기

부에서 사노맹이라는 단체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타하기를 십여차례, 마침내 우리들에게서 강제진술을 받아낸 안기부 수사대는 우리 두 명을 이른바 반국가단체 가입이라는 죄목을 씌워 각각 실형 5년, 2년씩을 받게 하였다.

하지만 아직 피가 뜨겁고 기백이 펄펄뛰는 젊은 우리에게야 이쯤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었으나, 자식들이 검찰에서 구치소로, 또 법원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까지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는가. 우리 둘이 안기부로 강제연행되어 수사를 받는 동안, 박은 강추위가 갑작스레 몰아닥쳐 눈발이 날리기도 했다는 걸 알았다. 눈발을 헤치며 안기부 정문 앞 주차과 출소로 들어와 아들 면회를 간곡하게, 또 때로는 싸움을 하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 분노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

노동문학의 길

장민성 선배와 나는 한 학교 선후배 지간이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서로 문학열은 대단했지만 시, 소설같은 작품을 쓰는 일에 우리 둘은 똑같이 소질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문학평론에 열을 쏟은 것 같다.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가 판금에서 풀린 지 1년, 그리고 고 김남주 선생의 시가 <농부의 밤>이라는 소재자로 배포된 해. 이런 너나없이 김남주 시를 모르면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 문학에 관한 한, 광신도들이었다.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 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을/.../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밤 12시/ 도시는 별집처럼 쭈셔놓은 심장이었다/밤 12시/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을 날리고/.../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아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김남주의 <학살 1>, 5월광주 비디오, 그리고 80년 당시 선배들의 증언, 또 광주에서 서울로 진학해 온 벗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우리는 '문학의 길'을 생각했다. 치참한 싸움의 현장에 다가서기 위해 우리들은 얼마나 애를 썼던지, 급기야 가두로 나가 돌을 던지고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맞부딪히는 전투(?)도 씬없이 하였다. 그건 다른 길이 아니라 문학의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몇년이 흘러 내가 제대한 직후 장선배와 다시 만나 <노동해방문학실> 일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열달 남짓 활동을 하다가 연행된 것이다. 그 후, 나는 2년동안의 복역을 마치고, 1993년 11월에 진주교도소에서 출감하였다. 그러나 장민성 선배는 아직 감옥에 있다. 올해로 4년째, 다음 다음달, 그러니까 11월이 되면 딱 5년 징역을 살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상고(3심-대법원 항고)에서도 기각을 당한 터라, 이른바 '밀둥'이 짊어져 내년 1월 29일이라야 출옥이 가능하다. 장선배 어머님께서 매달 면회를 가신다. 감옥에서 서른을 넘긴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머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드님에게 주신 곳곳한 믿음

작년에 잠깐 민가협 부회장 직을 맡으셔서 탑골 공원 앞 목요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던

어머님이 요즘은 거의 참석을 못하고 계시다. 장선배 아버님이 현재 깊은 병환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한쪽눈에 물이 고이는 악성안질로 한눈은 뜨지 못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귀도 잘 안들리신다고 한다. 그리고 머리전체에 악성 두통이 이곳저곳 옮겨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1주일에 서너차례, 장선배 어머님께서서는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대 병원에 들러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수발을 계속 해야한다고 하셨다. 어머님도 요즘들어 기력이 쇠약해지신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말씀을 일체 안하시고 있다. 한번은 어머님이 아들 면회를 갔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장선배가 막 다그치듯이 아버지 병환을 묻길래 그냥 '다 나았으니 걱정말고 있으라'는 말씀만 하고 돌아오셨다고 한다. 그런 어머님에게서 장선배의 곳곳한 기질을 느꼈다.

백찬 만남의 날을 기다리며

장민성 선배는 감옥에서 엄청난 독서로 소일하고 있다. 중국철학사와 한국문학사,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철학을 공부하고, 최근에는 미국 사회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우리 사회의 갈 길을 바로 잡아내지 못하면 미국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짐작한다. 사회 곳곳이 썩어문드러져 가고 있으나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미국.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방전을 나름대로 마련하려는 계산이리라. 하루빨리 장 선배가 이 현장으로 복귀해서 펄펄뛰는 청년의 기백을 함께 펼치고, 어머님의 눈물을 씻겨 드리길 간절히 바란다.

장 선배의 출옥날을 기다리며 후배 소종민 씀.

한줄기 밝은 빛으로 살아 있는 얼굴들

- 여름수련모임에 다녀와서

8월 넷째주 토요일, 때늦은 호우와 홍수로 한 주 연기되었던 여름수련회를 떠나는 날이다.

약속된 장소인 잠실역에 도착, 전철역에서 이종환선생님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롯데백화점 골들이상(사실은 너구리라고 한다)앞에 가보니 거의 한시간 이상 이른 시각이어서인지 우리 회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종환선생님께서 일터부근에서 손수 따다가 씻어오신 무궁해포도를 함께 나눠 먹고 얘기를 나누다보니 권오헌회장님과 후원회 간사들을 선두로 차츰 모여들기 시작했다.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4시 30분 경, 드디어 출발.

차창밖으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간간이 내리고, 충북 보은을 향해 달리는 버스안에서 낮익은 얼굴, 새로운 사람들과 가림없이 간단한

자기소개시간을 가졌다. 이종환, 이세균, 이두균 선생님 등 장기수 선생님들과 지난 8월 초에 출소하신 장의균선생님, 실업계고교의 건강한 젊은이들의 모임인 '희망', '옴시롱감시롱'의 몇몇 회원들, '여든여덟'의 낮익은 얼굴들, 늘 가까이에서 물심양면의 도움을 아끼지 않는 김지영, 소수영, 이정규, 이덕우씨 등 후원회 운영위원들, 아마도 홀로 참석하는것만도 용기가 필요했음직한 회원 등 45명 남짓한 우리 모두는 이 따뜻하고 의미깊은 만남의 장에서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일곱조로 나뉘어 1차조별모임을 가졌다. 국민학생부터 70세 넘은 젊은(!) 할아버지까지 직업도 연령도 천차만별이었지만 우리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어우러졌



다.

우리의 목적지인충청도 보은의 동양일보 연수원에 도착한 시각은 사위가 어두워진 8시 30분 경, 다른 차편으로 우리보다 일찍 출발한 민가협 가족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식사준비까지 해두시고 서울에서부터 4시간 넘게 달려왔는데도 지루하거나 피곤한 기색이 없는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머니들의 정성과 손맛이 듬뿍 배인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서울은 물론 대구, 대전의 민가협 어머니, 아버지들, 김선명선생님을 비롯한 출소

장기수선생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여름수련회개막식을 시작했다.

간단한 민중의례와 개막인사 그리고 어머니들과 선생님들의 소개시간은 꽤 길게 이어졌는데 특히 어머니들과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인사말씀

은 그자체로 우리 조국의 뼈저리게 아픈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는 아들을 기다리며 노구를 이끌고 자리를 함께 하신 팔순의 신인영선생님 어머니(고봉희 님. 83세), 내 자식은 이미 출소했지만 통일되는 그 날까지 작은 힘이나마 보태보겠다고 하시던 어느어머니, 파렴치한 군부독재의 폭력에 외아들을 잃고도 그 기막힌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선생님들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던 강경대열사의 아버지, 과거에는 미국 이민으로 그저 '장사꾼'일 뿐이었지만, 7년 옥살이를 하고난 지금은 분단된 조국의 아들로 살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중이라는 김철 선생님, 우리들에



게 당신들이 겪고,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말씀을 줄이시던 다른 많은 선생님들...

혼탁한 조국의 현실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아 있는 그 분들의 겸허한 말씀과 조용환 변호사님의 국가보안법, 양심수 문제에 대한 차분한 강의는 충청도 시골의 밤, 칠곡같은 어둠의 가운데서 어느덧 희망으로 떠올라 예전에 국민학교였다는 그곳을 작은 민주터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밤은 점차 깊어가고 우리 모두는 조금씩 피로와 졸음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름그대로 '희망' 처럼 피어난 들꽃과도 같았던 '희망'의 씩씩한 노래와 울동, 그리고 '여든여덟'의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남녀노소 가릴 것없이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하면서 행사는 그 열기를 더해갔다.

그 밤 행사의 절정은 4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온갖 잔인한 전향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자그마치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0.75평 독방에서 사시다가 저 기만적인 '8·15특사' 로풀려나신 김선명선생님을 비롯한 안학섭, 한장호, 김철 네 분 선생님들을 위한 환영연이었다.

'희망'과 민가협에서 준비한 소박한 사탕꽃다발을 선생님들 목에 걸어드렸다. 우리들의 환영에 답하여 김선명선생님은 자신은 이제라도 풀려났지만, 혹독한 전향공작과정에서 죽어간 동지들과 아직 그곳에 남아 기약없이 독방생활을 해야 하는 함께 늙어온 동지들을 떠올리며 기쁨보다는 슬픔이 앞서는 듯, 남은 생을 오직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변함없는 신념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45년만에 만나 뵈, 이제는 90넘은 노파가 되신당신

의 어머니가 "선명아, 이제 집에 가는거냐? 같이 우리 집에 가는거지?"라고 뇌이듯 하시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때는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의 어느 누구인들 이 기막힌 역사의 비극 앞에서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하는 수련회 마당엔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들, 우리의 현대사에서 단 한번도 제대로 구현해 보지 못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꿈'을 죄목으로 독재의 군화발아래 젊음을 고스란히 바쳐야 했던 순결한 영혼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떠안아야 했던 죄 없는 어머니들, 그리고 그들 진정한 승자들의 뒤에서 진실에의 열망, 통일에의 열망만이라도 한 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

슬픔도 힘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만 같다. 그것도 그냥 슬픔이 아니라 역누를 수 없는 분노마저 당연해지는 우리의 현실이 역설적이



게도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 조국과 겨레가 하나되는 그 날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을만한 끊임없는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를 하나되게 만든 시간은 그 뿐이 아니었다.

이내 분위기를 바꾸어 조별 장기자랑시간에는 어머니들이 마련해 둔 부침거리들을 맛있게 구워내어 안주삼고, 텅텅한 막걸리를 통째로 가져다 두고 한 잔씩 나눠 마시며 어머니들과 선생님, 후원회원들이 고루 조를 이루어 모두 일곱개의 조가 조이름, 조구호, 조노래, 그리고 '민가협', '양심수', '국보철(국가보안법철폐)'을 첫머리로 하는 3행시 짓기 등 갖가지 장기를 자랑하는 신명나는 한 판 승부를 겨뤘다.

그렇게 정구행사를 끝마치고 나니 어느새 새벽 3시 30분이 넘는 시각이 되어있었다.

정구행사는 다 마쳤으니 방에 들어가 주무신대도 말할 순 없었지만, 사실 정말 신나는 행사는 바로 이 시간이후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터, 30여명이 남아 그날밤을 꼬박 새울 수 밖에 없었던 뒷풀이 시간은 정말이지 그 어떤 데서도 맛보지 못했던 희열과 감동을 준 시간이었다. (그시간에 주무신 여러분들, 가슴치고 후회한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아실테죠?)

모두들 허물없이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는 했지만 특히 송갑석어머니 등 몇 분 어머니들의 모습은 거의 '예술'이나 다름없었다는 후문이 나돌 법도 했다.

얘기를 듣자하니 그날 어머니들은 진짜실력(?)을 발휘하신것도 아니라고 하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열정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이름자보다는 옥에 갇힌 자식의 이름자 새긴 이름표를 달고 오라버니같은, 아버지같은 장기수선생님들과 천금같은 내 새끼같은 젊은이들과 한데 어우러져 단지 이 땅의 어머니라는 이유때문에 맺힌 한을 풀어 보시려는 듯 목청껏 노래부르고, 춤추시는 그 모습을 보노라니 눈물겨우리만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자식 옥에 두고, 그 자식덕분에 깨친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에 한껏 돌팔매질하느라 지치고 아픈 심신을 그렇게라도 풀어놓으시려는 듯...

어머니들과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다가 문득 17년 전 쯤, 내 고교시절, 썼던 시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어머니,
사랑하는 기쁨만으로도
아픈 세상을 살 수 있기로 해요-

진정한 사랑은 절망을 희망으로, 세상의 아픔을 기쁨으로 다시 빚어내는 힘을 주는 것일게다. 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임에야 더 말해 무엇하리.

그런 와중에도 밝은 온통 캄캄한 어둠뿐인 듯 하여 우리들이 함께한 이 자리만이 어둠의 바다에 떠 있는 섬인 듯 싶더니, 어느결에 동터오고 있었다.

끝이 없을 것처럼 오만하게 버티고 있던 어둠이 견히고 새벽이, 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6시, 전원 기상, 아침 체조, 아침식사를 마치고 운동장에서 작은 올림픽을 열어 함께 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10시 경, 화양계곡을 향해 출발, 한시간 여를 달려 휴가철을 갖 비긴 한산한 계곡을 따라 걸어 올라가 계곡 물가에서 보물찾기, 물놀이 그리고 꿀 맛같은 점심식사를 했다.

계곡가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낸 우리는 화양계곡 입구의 광장에 둘러 앉아 아쉽지만 여름수련회라는 마당을 가졌다.

모두가 눈독들이던 시간은 단연 잇가 1백만원(주최측의 강력한 주장임:필자 주) 상당의 각종상품이 걸려있는 조별, 개인별 시상식.

단체부문에서는 1조와 희망이, 개인부문에서는 신인영어머니, 송갑석어머니, 이희두 회원이 '금도금' 손잡이가 달린 변기세척기, '은도금' 쭈세미 등의 부상을 수상하였다. (3조가 아무런 상도 타지 못한 것을 미루어 보면 심사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조에 속해 있었던 필자의 개인소견임)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힘든 따뜻함과 용기와 기쁨이 넘쳐났던 1995년-분단 50주년, 통일 원년의 수련회에서 만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보낸다.

특히 여러 선생님들, 어머님들에겐 새 날이 올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모두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조국에 대한 사랑

“귀관들은 조선의 유수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되면 귀관들의 장래 길은 아주 환하게 열릴 것이다. 귀관들의 장래를 축복한다.”

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된 직후 당시 견습 사관으로 동경에 계시던 정순택 선생님(74세)이 들으신 첫마디이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조국이 선생님에게 돌려준 것은 패전국 장교조차 축복하던 ‘환한 미래’가 아닌 30년이 넘는 감옥살이와 석방 후의 열악한 생활이다.

바짝 다가선 가을이 여름을 다 끌어벌러 양으로 이 골목 저 골목 바람을 몰고 다니는 마지막 여름 속을 걸어 뚝섬으로 정순택 선생님을 뵈러 갔다. 선생님은 한달전까지만 해도 충북 음성에서 사셨다. 새벽길 2km를 멀다않고 손수 옥수수를 가꾸셨고, 그것을 배낭 가득 짊어지고 애쓴다며 민가협 사무실에 갖다주시기도 했다. 뚝섬역에서 10분 거리의 선생님 계신 곳은 목공장 뒤편의 습기찬, 그러나 책으로 가득 채운 작은 방이었다.

충북 진천이 고향이신 정순택 선생님은 송강 정철의 13대 손이다.

4살때부터 아버지와 사랑방에서 함께 생활하시며 아버지를 따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던 습관이 아직까지 몸에 남아 있다는 선생님은 우리가 험레벌떡 잠이 덜깬 몸과 머리로 댁에 도착했을 때도 단아하게 앉아 책을 읽고 계셨다. Guy Sorman의 ‘자본주의 종말과 새세기’

취학전 아버지로부터 한문을 공부하시던 선생님은 10살이 되던 1932년에 진천 백곡 보통학교에 입학하신다.

보통학교 6학년때의 일이다. 교장집에 상사가 생겨 선생님은 학교 대표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문상을 갔다. 문상을 가 보니 당시 은행가이던 교장의 집이 대단히 으리으리 했다.

의아해진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께 교장의 집이 그렇게 호사스런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담임 선생님은 아주 의미깊은 대답을 하신다.

‘그래서 세상은 두번 변해야 한다.’

“어렸었지만 나는 그때 그 의미를 탁 알아 차렸습니다. 한 번은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민족해방을 해야 하고 또 한 번은 계급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였겠지요. 그 후로도 그 선생은 좋은 역사 교사였습니다. 나한테 정신적 영향을 많이 주셨지.”

선생님은 37년 청주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 백지동맹을 조직하시기도 한다. 일본인 보다 더욱 일본어의 사용을 강조하며 혹독하게 학생들을 다루던 화학선생에 대한 반항심으로 백지동맹을 주도하신다.

그러나 우수학생이던 선생님에 대해 처벌이 가해지지 않아 무사히 졸업을 하신 후 42년 경성고등상업학교에(현 서울 상대)입학하신다. 청주 상고 졸업생 중 단 1명 만이 합격할 수 있었던 어려운 관문을 뚫고.

선생님은 졸업도 하기 전인 44년 1월 학병으로 끌려가 교토부 후꾸찌마시의 중부군 교육대 예비사관학교에서 교육받으신 후 45년 동경사단에 배치되어 있다 해방을 맞으신다.

선생님은 징병을 가 있던 조선인 300 여명을 인솔하여 조선에 돌아 오신다.

“서울로 올라와 복교를 했습니다. 복교를 해 나라 돌아 가는 꼴을 보니 완전히 미국 세력하에 들어간 우리 역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북에서 들어 오는 소식을 종합하면 토지개혁되지, 노동법령 나오지, 남녀 평등법령 나오지, 친일파 숙청하지, 해방직후 해야할 민족적 과제를 남



에서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시행된다 이겁니다. 그래 입당을 결심해 46년 12월 남로당에 가입했지.”

그리고 그해 선생님은 결혼도 하신다. 사상적 장로(長路)와 심정적 안정을 다 얻으신 46년이다.

집안에서는 선생님이 스물 다섯이 되자 결혼이 늦다고 야단이셨다. 형제들이나 사촌들은 보통 스물이 안되 결혼을 다 했던 것에 비하면 선생님의 결혼은 아주 늦은 것이었다.

선생님의 결혼 상대는 당시 공주 금학 국민학교 교원을 지내던 분.

결혼 얘기를 묻자 선생님은 양 볼 가득 웃음을 무시며 기막힌 사연을 말씀해 주신다.

“그 때는 시골에 땅이 한 평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굳이 ‘순택이 결혼에 써야 한다’며 냇가 포플러 숲만을 남겨 두셨는데 그것을 팔아 허리에 차고 오던 중 서울역 대합실에서 통금해제를 기다리며 새우잠을 자다 돈을 모두 도둑 맞으셨어요. 거, 송금료 몇푼 아낄 요량으로 직접 가져오시다 도둑 맞으신 거죠.”

아버님의 고대하던 ‘우리 순택이 결혼’은 그런 사연으로 인해 흰 양복, 흰 구두로 이루어졌다.

피로연할 돈도 없어 간단하게 차린 상에 선생님은 딱 한 분만을 손님으로 모셨다. ‘세상은 두번 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신 국민학교 은사님만을.

“선생님이 아주 좋아 하시더군요. ‘평생 교원 노릇하며 많은 학생들을 길러 냈지만 결혼식에 초청한 사람은 순택이 하나 뿐이다.’ 하시며.”

그 후 상업전문학교를 졸업하신 후 선생님은 46년 신한 공사(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후신) 재무부 기장 계장으로 입사하신다. 수석 합격자의 당당한 자격으로.

그러나 미군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에 불만을 품고 47년 상공부로 자리를 옮기신다.

상공부 재무부 감사관리 감사관으로 있으시며 선생님이 하신 일은 미국서 온 물건들을 판매하는 일이었다. 태평양에서 미군이 쓰다 남은 물자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대충자금 명목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일이었다.

몇 천, 몇 억의 돈을 관리하던 선생님은 관리하던 돈 중 상당액을 운동기금으로 쓰기도 했다. 그리고 49년 5월 북으로 올라 가신다.

월북 후 강동 정치학원에서 수학 한 후 선생님은 상업성 관리부 영업관리처 부장의 자리에 배치 되신다.

그리고 6. 25.

재정에 밝으신 선생님은 서울시 인민위원회 소속이지만 표면상으로는 한 개인으로 행사하며 서울 상인과 접촉해 전쟁 복구 물자를 사들이는 일을 하신다.

그러나 9월 26일 인민군이 후퇴하자 선생님도 함께 후퇴해 평양에 도착해 보니 평양은 이미 철수한 상태였고 상업성 간부의 가족들은 사인장으로 조직적으로 후퇴했다는 소식을

들으신다.

그 후 선생님은 외국인 접대 관리소 소장의 직책을 맡아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점, 식당, 호텔 경영등을 관리하신다.

“한 번은 사업상 일로 강계로 가던 중 차가 전복해 많은 사람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일이 바빠 가장 마지막에 뛰어 트럭 제일 뒤에 타는 바람에 트럭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차에서 뛰어 내려 요행이 살았지.”

선생님은 바로 몇 년 전 일처럼 생생하게 그 때 상황을 전해 주신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굴러 떨어지는 트럭의 처참한 광경이 눈 앞에 연상되어 몸이 오싹해 진다.



▲ 경성상업고등학교 다니실 때의 모습



그 후 선생님은 52년 4월 다시 상업성으로 옮겨 일을 하시다 전 국토를 완전한 폐허 구덩이로 만든 전쟁이 끝난 후 56년 기술자격 심사위원회 책임 심사원으로 지내신다.

58년 7월.

선생님은 분단을 불사르고 조국 통일에 헌신할 결의로 남으로 내려 오신다.

네 아들의 든든한 아버지, 한 여성의 믿고 기댈 평생의 반려자, 사회적 존경을 받던 고급관리의 신분을 모두 버리고 오직 조국 통일의 최전선에 서시겠다는 각오로.

선생님은 체포후 고문 받으신 일을 예사처럼 말씀하신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겪으신 일인데...’ 하시며.

“73년 전향공작이 가장 심하던 때가 켈 힘들었지. 1년 6개월 동안 목욕도 안 시키지, 면회도 안되지, 빈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75평 방에 4사람을 집어 넣기까지 했어요. 참고 있을 수 없다

해 집단 단식에 들어갔고 그때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방의 주동으로 찍혀 다른 사동 빈 방에 끌려가 보니 곡괭이 자루 같은 몽둥이, 가죽 혁대, 의자, 물 한 바케스, 소리 못지르게 입을 막을 긴 수건이 준비 돼 있었는데... 밧줄로 손과 발을 연결해 묶어 몸을 동그랗게 만들고 구타하기 시작해 기절하면 물을 부어 정신들게 하고 또 물매를 퍼붓고...”

그렇게 인간이하의 매질과 고독한 독방과 모욕적인 대우 속에 30여년을 사신 선생님께 병이 생기는 일은 당연했다. 환각, 환청이 나타나고 숨이 막힐 듯한 악몽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 졌다.

게다가 다른 재소자에게 선생님이 경험한 북한 사회를 얘기해 준것이 죄가 되어 무기에 10년형이

더 얹혀진다.

어이 없는 일이다.

“나라와 민족이 타민족에 억압 받으며 자주적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나의 표정이 너무 일그러졌던지 오히려 선생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언제나 선생님들 취재 끝엔 눈물바람이 인다.

군계 악수를 나누고 골목을 나오다 살짝 뒤를 돌아 보니 어서 길을 가라 손을 저으시는 선생님 등뒤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알짹거리고 있었다.



▲ 정순택 선생님.
32년 옥고를 치루고 89년 12월에 나오신 후 1년, 첫돌을 맞아 쓸쓸한 자축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

‘나는 지옥문을 나오긴 했지만 지옥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없다. 나 홀로는 생물학적인 생을 이어갈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써 주는 사람도 없다.

31년 5개월을 지옥살이 했지만 나는 석방된 게 아니라 가석방이다. 보안감찰 대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현재는 지옥과의 단절이 아니라 지옥살이의 연장이니 자유도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없다”만이 있다.

아니다, 말을 뒤집어야 하겠다. 나에게도 “있다”도 있다.

나에게는 한강과 같이 도도하게 흐르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고, 백두산과 같이 우뚝 솟은, 외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통일을 갈망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고 거짓말 하는 통치자를 노래기 같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우정을 꽃보다도 고약하는 마음이 있고, 재물에 탐욕스러운 사람을 똥보다 더 더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부정과 비리에는 폭발하는 화산과 같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위선자를 송충이 같이 징그러워 하는 마음이 있다.

나에게는 “있다”도 많다.

“없다”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있다”가 있다. 나는 마음의 부자다.



-이 글은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중인 김성만씨(무기, 대구교도소)가 안옥희 민가협 상임의장 앞으로 보내온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식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종식이는 건강한가요? 징역속에서는 아무리 건강하다해도 아무래도 몸속이 좀 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출소 후에는 몸이 다시 싹해지고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종식이 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날이 와서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3-4주 정도 가석방의 혜택을 보았기에 무슨 혜택을 보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나고 다시 사족으로 결합하는 그날이 실현되어서 저도 종식이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생각에 마음이 훈훈해 집니다.

이제 종식이가 다시 건강해지고 어머니의 더욱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빕니다. 같은 사동에 있는 갑석이는 녀달을 남겨 놓고도 못나갔는데 어찌 그마음이 고단하지 않았습니까마는 의연하게 하루하루 일과에 충실한 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끝난 듯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네요.

이번 사면을 보면서 저 역시 낙담이 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무기형 중에 10년을 살았으니 현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으로 보아서 제가 석방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는 법이겠으나 낙담이 되는 이유는 이번 사면을 보면서 현 정부가 얼마나 정치범을 한 사람이라도 안내보내려고 하는가를 직시하게 되면서 현 정부하에서 과연 제가 석방될 수 있겠는가 회의가 들어서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월을 견디어야지요. 이 아픔의 세월을 차분히 독서와 명상에 열중하며 견디기로 하였습니다. 앞날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아는데 지금의 이 시기에는 어둠이 저를 둘러싸고 있군요. 이 세월을 견디기로 하였습니다. 어둠이 걷힐 때 까지이지요.

올 해에는 처음으로 편지를 드립니다. 뜸하게 편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올해에 제게 편지를 주셨다면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종식이 어머니 편지 뿐 아니라 많은 편지를 받지 못하였지요. 뒤늦게 알게 되어서 충격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갑석이의 이야기로 징역 5년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웠다면 징역 5년이 자신에게 좋은 보탬이 되었다고 하는 군요. 아마 종식이기도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식이이 이제 어머니의 걱정과 기도속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더욱 큰 일을 하는 인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5. 8.18 김성만 드림



백년만의 햇빛

- 세 장기수 출옥하던 날 -

이기형(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1995년 8월 15일 아침 아홉 시

대전교도소 정문 앞

- 드디어

김선명 (45년 - 세계 최장기수)

안학섭 (43년)

한장호 (39년)

세 장기수

불굴의 현대사 얼굴이

옥문 밖에 나타났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쉬가 일제히 터졌다

먼저 나온 동지들이

꽃다발을 걸어주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감격의 붓물이 터졌다

세 사람 모두 오랜 유폐인답지 않게

눈이 빛났다

늠름했다

의젓했다

혁명적 낭만주의란 저런 걸까

아, 백년만의 햇빛

눈물

눈물

무슨 말이 필요할까보냐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답한다.

"....., 오직 통일의 희망으로 살아 남았지요. 저 안에는 아직도 많은 동지들이 갇혀 있습니다. 먼저 나와서 가슴이 아픕니다......"

"....., 죽을 각오로 옥살이를 시작했지요. 남북 분단 50년이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합니까?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이꼴이 됐지요?... 전향 테러 때 두 사람이 맞아 죽을 적에 제일 슬펐습니다. 통일 염원의 맺가는 너무나도 비참했지요. 운운"

인권 무인지경 처절한 독방에서

어찌든 저렇듯 흔들림 없이

외로움을 딛고 용케도 살아 나왔을까

인간 승리, 인권 승리의 화신자,

의인이 따로 있을까

영결이 따로 있을까





8·15 양심수 석방자 및 감형자 명단

■ 석방자

• 형집행정지

김선명 (45년 복역), 안학섭 (43년), 한장호 (39년)

• 가석방

김철, 최해보, 신상봉, 조봉수, 유종안(일본관련. 국가보안법 사건)

• 잔형면제

황재운(현대중공업노조), 김재곤(기아자동차노조), 이근희(정당인), 김종식(한양대, 전대협 5기 의장), 태재준(서울대, 전대협 6기 의장), 김성민(호남대, 국보법), 박상춘(조선대, 조통위장), 이철우, 김영권, 이종현, 윤창호, 오태봉(동의대, 5·3 동의대 사건), 김종철(순천대, 집시), 이금성(호남대, 미문화원시위), 한철수(경희대, 총학생회장 범민족대회), 김영하(중앙대, 6기 전대협 조통위장), 김기창(조선대, 총학생회장)

■ 감형자(장기복역양심수)

• 무기에서 20년으로 (5명)

김태룡, 문철태, 류정식, 진창식, 함주명

• 잔여 형기의 1/2면제 (10명)

김병주, 김용태, 김운수, 나종인, 박찬우, 서순택, 손유형, 이병설, 이성우, 최선웅

8월 구속 양심수

• 5.18 기소촉구 시위 - 집시, 폭력

여찬혁(전북대) 조주환(전주우석대) 장남혁(군산대) 우태원(강원대) 김덕렬(충북대) 김용문 이보균 김영광(이상 고려대) 신정일(고려대 서창배움터) 정규원(성균관대) 이경수(동신전문대) 손정권(목포대) 김상도(단국대) 이종균 김대천 이정균(영남대) 신재현(경성대) 이상철(동명전문대)

• 한국통신 노동조합 - 업무방해, 폭력

이해관(경기본부 위원장) 김규화(동대문 전화국) 박문형(청량리 전화국)

• 민주노총 광주전남 교육국장 - 국가보안법

김미순

•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사건 - 국가보안법

장대영

• 5.1동맹 사건 - 국가보안법

이범준 신원철 이철주 김미정 정순구(이상 인천대 줄) 현준우 한미선 권성기 조재진(이상 고려대 줄) 김서태(서울시립대 줄) 정은주(충신대 줄) 이점수 국승룡(서울대 줄)

• 전국노점상연합 노점철거 반대시위 -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

박영생(전노련 간사) 박명규 박관영 김종상 홍경희(노점상)

• 영남대 병원 노동조합 - 업무방해

박문진(위원장) 정미선(부위원장) 최월구(사무국장)

• 대구노련 의장 - 제3차 개입금지

박용선

• LG 그룹 노동조합 - 법정소란

박원주 성한기(해고노동자)

• 서충련 의장 - 국가보안법

조중옥

- 8• 1 - 5. 18 광주 불기소에 항의하는 교수들의 집단 성명이 점차 확산되고, 공대위는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8• 2 - 민가협 등 12개 단체가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복권 수배해제를 위한 1995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 구속 수감중인 서경원 의원의 가족들이 청와대에 면담신청을 하려했으나 경찰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8• 3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5. 18 유족대표의 사례발표와 서경원 의원 부인의 사례발표, 인천 노래 이야기 공연이 있었습니다.
- 8• 5 - 일본 유학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8년 선고 받았던 장의균 씨가 만기출소 하셨습니다.
- 국제 엠네스티가 박용길 장로님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건강이 악화된 은수미(사노맹 사건으로 구속수감중)씨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8• 7



- '45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운동주간 선포식'이 명동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선포식 이후 윤정모(작가), 박원순(변호사), 유제현(경실련 사무국장)씨가 하루감옥 체험에 들어가셨습니다. 한편 전국 교도소의 465명의 양심수들도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8• 8

-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이어졌습니다.
- 캠페인 둘째날로 국민대생 등 하루단식 결단식이 있었고, 하루감옥 체험에 정태춘, 강경선 교수님이 함께 해주셨고, 거리홍보와 시와 노래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박용길 장로님 석방 촉구대회가 '통일맞이' 주최로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8• 9

- 캠페인 셋째날. 전국 교도소 앞에서 양심수 면회투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전교도소 앞에서는 안옥희 민가협 상임의장, 김상근 NCC 인권위원장, 금강스님 등이 대표로 김선명 노인을 면회 신청 했으나 법무부의 불허지시와 800여명이 넘는 전투경찰, 교도소의 만행으로 면회를 하지 못하고 규탄집회를 한 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 명동성당에서는 출소장기수 (권낙기, 김석형, 김해섭)들의 감옥생활 대담이 있었고, 시와 노래의밤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루감옥, 송경웅신부 혜진스님 원창연 씨 등)
- 서울지검 공안21부 박용길 장로님을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습니다.

8• 10

- 5. 18 광주항쟁유족회원과 한총련 구국단식단이 송례문에서 기소촉구 농성을 하다 경찰에 강제연행되었습니다.
- 캠페인 나흘째. 하루감옥 체험(김상근 교수, 명진스님, 조하순 목사)과 민가협 100회 목요집회('양심수 없는 날을 그리며')가 열렸습니다.
- 5. 18 학살자 기소촉구 집회가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8• 11

- 캠페인이 다섯째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감옥, 고영구 변호사, 김종구 원장, 박재동 화백 등)
- 국제 엠네스티는 8• 15를 맞아 남북한 당국이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었어요

- 정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했으나, 3, 169명중 석방되는 양심수는 25명, 감형은 겨우 15명에 그쳤습니다.
- 8·12 - 캠페인 연세재, 하루감옥 체험(임종인·이덕우 변호사, 최자웅 신부님 등)과 시민대회가 있었습니다.
- 범민족대회(동국대), 8·15 민족공동행사(명동성당) 개막식이 각각 있었습니다.
- 8·14 - 한총련 소속 대학생 2명(정민주- 인천대 건축학과 3년, 이혜정 - 카톨릭대학교학과 2년)이 평양에서 열리는 범청학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고 한총련이 발표했습니다.
- 8·15 - 8·15 50돌 맞아 제6차 범민족대회와 8·15 민족공동행사가 열렸습니다.
- 정부의 8·15 사면으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비롯한 양심수 25명이 석방되고, 김태룡씨 등 15명이 감형되었습니다.
- 8·16 - 김선명 선생님이 출소 후 종합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폐와 기관지가 안좋고 혈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18 책임자 기소촉구를 위한 3차 국민대회가 장충단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경찰 4,000여명이 집회장에 난입해 최루탄과 곤봉으로 해산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단국대생 장원호씨는 최루탄에 맞아 실명하는 등 3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 8·17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만적인 8·15 석방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석방자중 김종식, 태재준, 한철수, 장의균씨 등이 함께 했습니다.
- 8·18 - 출소하신 안학섭 선생님이 건강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염 등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셨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8월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5.18 국민위 항의방문단을 서대문 경찰서가 하루동안 불법감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 8·20 - 양심수후원회 8월산행이 있었습니다. (북한산)
- 8·21 - 박창희 교수 4차 공판. 이날 박교수는 공사사실 중 상당부분이 안기부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
- 8·24 -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습니다. 5.18 범법자 기소촉구와 경찰 만행 규탄과 8·15 사면조치의 기만성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8·27 - 시흥 헤명 양로원에 계신 임병호 선생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선생님은 심한 불면증과 어지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 8·28 - 출소하신 김철 선생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출소장기수 선생님 11분께 생활지원금을 전해 드렸습니다.
- [달]자를 다섯 교도소에 발송했습니다.
- 8·29 - 독일 한인교회 연합 토요기도회 회장 인소천 선생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해 좋은 말씀을 주시고 후원금 1,000마르크를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한 선생님께서 간헐성 협심증으로 고려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 성동경찰서가 노점단속에 항의하는 노점상연합회 소속 일꾼 박영생씨를 발가벗긴채 고문을 가한 사건과 관련 민가협 회원 성동경찰서 항의방문.
- 8·30 - 박용길 민가협 공동의장 석방을 위한 석방대책위가 꾸려졌고(안옥희, 김상근, 이창복 공동대표) 향린교회에서 방북보고 및 석방 촉구 결의 모임 가졌습니다.
- 양심수 150명에게 영치금을 발송했습니다.
- 8·31 -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박용길 장로님을 면회했습니다. 박장로님은 허혈성 협심증으로

난 12.24 두번에 걸쳐 큰 통증을 일으켰고, 현재 시급히 종합검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 생활비를 전해 드렸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박용길 장로님의 따님과 노점상연합회 우의장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 김선명 선생님이 46년만에 어머니(호우숙, 93세)를 만나뵙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축하와 두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자녀돕기 지원금을 김태룡, 서경원 자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민족·민주 운동에서 이론적·실천적 활동을 해오셨던 박현채, 정종서 두 선생님이
8월 17일 한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들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고 박현채 선생님 약력

1934. 11. 3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심
1950	16세 학생으로 입산. 전남지구 빨치산 문화부 중대장-북부관통상으로 하산
1959	서울 상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농업문제연구회 간사
1961	서울상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서울상대, 홍익대, 충남대, 경희대 등에서 강의
1964	이른바 1차 인혁당사건으로 1년 옥고 국민경제 연구소장
1978	'민족경제론' 저술을 비롯해 한국 농업의 구상(81) 한국경제의 구조와 논리(82) 한국경제와 농업(83) 한국자본주의와 민족?(84) 한국경제구조론(86) 등 저서와 수많은 논문 공동저술 번역을 하였음.
1989	조선대학교 교수
1992	뇌졸중으로 입원
1995. 8. 17	61세의 일기로 운명하심. 묘지는 충남 천안 공원 묘지

고 정종서 선생님 약력

1926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심
1944	양정고등학교 졸업(제학중 반일 학생운동)
1945	해방뒤 교직원으로 2년 근무
1950	서울에서 민족 민주 운동을 하다 검거, 복역중 6.25 전쟁때 출옥
1960	한국노동신문 편집국장
1968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선고 받고 복역
1988. 12	21년만에 가출옥
1991	뇌졸중으로 입원
1995. 8. 17	온양 세종병원에서 돌아가심. 묘지는 경북 경산시 백합공원 묘지



회원소식

■ 나명주 회원의 시어머니 신순남(작가, 소설가 남정현님의 사모님)께서 폐암으로 현재 한일병원 513호에서 투병중이십니다. 쾌유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신호 회원께서 명동 코스모스 프라자(9월 개장) 4층에서 벵타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많은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 뱃팻을 지으신 안일순 선생님께서 책 50권을 사무실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양심수에게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순택 선생님께서 무극에서 직접 옥수수 농사를 지어 사무실에 1박스를 가져오셨습니다. 매우 맛있는 옥수수가 다 먹고 난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는군요. 감사합니다.

■ 석은미 회원(약국 경영)께서 사무실에 운지천 1박스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피로를 깔끔하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회원께서도 본 받으세요!)

■ 후원회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을 방문해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 그동안 지하방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던 정순덕 선생님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 최대식·김언경 회원의 딸 최진솔 양이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9월 14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백미영(구로구 오류동) 손혜련(대구시 칠곡동) 김소희(한신대 90학번 모임) 설충석(구로구 가리봉동) 이미민(구로구 고척동)

• 9월 산행 안내 •

아침 저녁으로 옷깃에 스미는 샛바람
하늘 높은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다시 한번 우리의 발자취 되돌아보며
기암 절경 도봉산에서 만납시다.

언제 1995년 9월 24일 10시

어디로 도봉산

모이는 곳 도봉산 입구 안내판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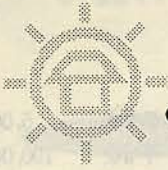
갖출 것 맛있는 도시락 여유있게 회비 3,000원

차편 시내버스 19번 좌석버스 2

전철 의정부행 도봉산 역에서 내려 10분



▲ 비온 뒤의 깨끗한 북한산 - 철쭉 넘치는 계곡물과 짙은 녹음, 아슬아슬한 바윗길. 언제라도 지루하지 않은 정다운 산 - 마당바위에서



양심수후원회원을 찾습니다

국민의 땀과 힘에 의해
이땅에도 군사독재가 끝장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문민정부는
국민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800명이 넘는 양심수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감옥안에는 4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심수 중에는 적게는 10년, 심지어는
38년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68명이나 됩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않고 햇빛 한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양심수 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3, 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과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이용하실 송금구좌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

지로번호 7619407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종로구 창신 2동 592-7

Tel. 763-2606 Fax. 745-5604